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도시설계 패러다임, 주거적합성 개선으로	멜버른
산업·경제	4	‘베를린 사물인터넷 허브’ 이전해 개관식 진행	베를린
사회·복지	7	기차역에 ‘노숙자 타깃’ 복지서비스 안내 터치스크린	보르도
행재정·교육	9	20개 구청과 협력해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파리
환경·안전	12	염소떼 이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잡초 제거	에드먼턴
	14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으로 도시재생 모델 구축	토론토
도시교통	17	‘100% 전기차로만 운영’ 차량공유 서비스 시동	로스앤젤레스
	19	다양한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 ‘모빌리티법’ 첫 시행	베를린
	22	전기차 주차·충전 인프라 확충해 보급 활성화	런던
도시계획·주택	24	빈 시영주택, NPO 등 사회단체 활동근거지로 제공	오사카
	26	젊은 신임교사에 임대주택 제공해 ‘교사난 타개’	암스테르담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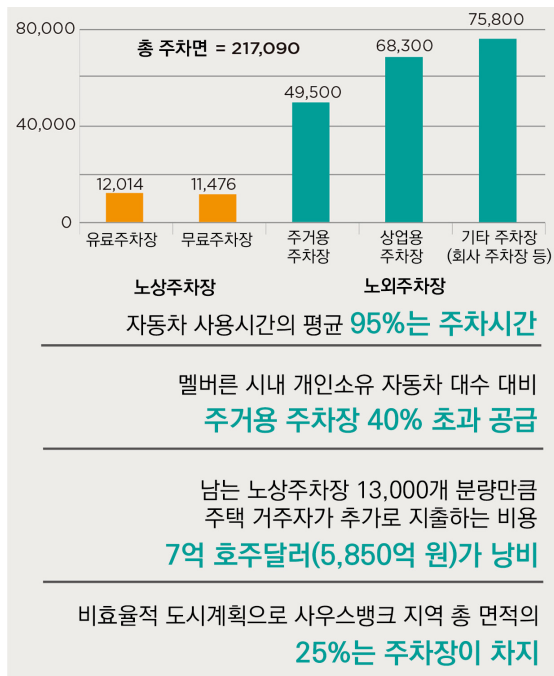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도시설계 패러다임, 주거적합성 개선으로

주차공간 구조조정… 보행자, 자전거·대중교통 이용자 등에 반환

호주 멜버른市 / 도시교통

- 호주 멜버른市는 차량을 우선하는 현행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주거적합성 개선으로 전환하고자 함. 특히 수요에 비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을 보행자나 자전거·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조정을 시행해 도시공간 이용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계획
- 배경
 - 멜버른에서 주차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4.6km²이며, 이는 호주에서 가장 큰 체육 경기장인 멜버른 크리켓 경기장(Melbourne Cricket Ground)의 225배 수준
 - 총 21만 7,090면의 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대부분 노외(Off-Street)주차장
 - 도심 내 주차장 비중 과다는 간접비용 상승 등 다양한 주거적합성 관련 문제를 유발
 - 도심 주차요금은 시간당 7호주달러(6천 원)인데, 이는 기업체의 노외 쓰레기통 부과금의 1/3 수준으로 저렴한 편
 - 저렴한 주차요금은 운전자의 도심 진입을 유인
 - 상대적으로 소수인 운전자가 점유하는 공간이 많은 탓에, 가로수·보행로·자전거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재설계가 봉쇄
 - 주차장 공급과잉으로 도시공간 운영상의 비효율과 불균형 발생
 - 도심 아파트 내 주차공간은 실제 차량 소유자보다 40%가량 공급이 많음
 - 쇼핑센터나 비즈니스 구역의 주차장도 많은 도시공간을 차지
 - 식당 등 소매업이 밀집한 사우스뱅크 지역은 전체 공간의 25%가 노외주차장이지만, 실제 쇼핑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의 대부분(73%)은 자가용 이외의 방식을 이용해서 매우 불균형적인 도시계획으로 평가
 - 시정부는 차량을 우선하는 현행 도시공간 설계를 주거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주차 개혁이 그 목표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
 - 자동차 토론보고서(Motor Vehicle Discussion Paper)와 주차 토론보고서(Car Parking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중
 - 차량의 운행과 주차에 지나치게 많이 할당된 도시공간을 보행자·자전거·가로수 등에게 반환해 공간 이용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중점



[그림 1] 멜버른시 주차공간 현황

– 주요 내용

- 도시 내 이동수단별 사용량과 도로 점유율이 비례할 수 있도록 균형을 회복
 - 자동차 이동은 전체 도시 내 이동의 36%에 불과하지만, 거리 면적의 60%는 도로(57%)와 노상주차장(4%)이 차지
 - 도심 진입 차량은 되도록 배달, 장애인 이동, 응급서비스 목적의 차량 위주로 제한
 - 도심거리는 보행자, 자전거·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최적화되도록 재설계
- 시정부는 도심주차에 관한 해외 주요도시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5가지 주요 대안을 제시
- 1) 노상주차장 전환
 -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노상주차장을 도시림 조성에 재할당해 2040년까지 도시림 그늘(Canopy Cover) 면적을 40%로 늘릴 계획
 - 그 외에도 넓은 보도, 트램 정류공간, 노상 식사공간 등 유용성이 더 큰 공간으로 전환

- 2) 주차요금체계 개혁
 -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 대신 시간대와 장소별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체계를 도입
 - 수요가 많은 주차장 주변의 교통정체를 줄이고, 주차 대기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
- 3) 주차장 공급 상한선 설정
 - 노외주차장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임을 고려해 주차공간의 면적을 제한
 - 신축 건물은 되도록 주차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노외주차장을 새로 만들 때는 비슷한 면적의 노상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 주차장 공급을 통제
- 4) 상황에 따라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디지털 표지판 도입
 - 디지털 표지판을 활용해 노상주차장의 용도를 상황에 맞춰 변경
 - 현재는 화물적재 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바꿀 수 없지만, 디지털 표지판을 도입하면 수요변화에 맞춰 쉽게 변경할 수 있음
- 5) 주차장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
 -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시가 확보한 주차장 정보를 최대한 제공
 - 노외주차장 운영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
 - 노상주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과 병행

<https://www.melbourne.vic.gov.au/news-and-media/pages/car-priority-putting-the-brakes-on-melbourne.aspx>

https://s3.ap-southeast-2.amazonaws.com/hdp.au.prod.app.com-participate.files/3815/2947/9994/Transport_Strategy_refresh_-_Car_parking.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산업·경제

‘베를린 사물인터넷 허브’ 이전해 개관식 진행

독일 베를린市 / 산업·경제

- 독일 연방정부는 자국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전국에 12개의 ‘디지털 허브’(de:Hub)를 세워 관련 기업과 연구소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중임. 베를린市는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FinTech) 분야의 디지털 허브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사물인터넷 허브(IoT Hub) 사무소의 이전 개관식을 진행해 관련 산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 배경: 독일 디지털 허브 계획
 - 2017년 도입한 독일 연방정부 재정·에너지부 산하 계획
 - 독일은 디지털산업국가로서의 국제적 매력에 올라가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기존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을 뒷받침할 기관의 필요성 제기
 - 총 12개 지역에 분야별로 특화된 디지털 허브를 설립
 -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특정지역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전국에 고르게 설치
 - 베를린에 있는 국가 허브 에이전시(National Hub Agency)에서 디지털 허브 간 업무를 조정하고 보완
 - 또한, 대외입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무역·투자 주체와 협력해 디지털 허브를 홍보
 -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업을 홍보해 매력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독일을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 투자처로 만들 계획
 - 기존기업과 스타트업과 학계(연구소) 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
 - 기존기업의 전문지식, 스타트업의 혁신성, 학계의 과학적 성과를 결합
 -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첨단기술과 비즈니스 분야의 지식 교류, 프로그램·아이디어 공유 등을 실현
 - 인공지능, 첨단 이동수단, 스마트 인프라 등의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혁신 프로그램 운영



[그림 1] 독일 전역의 디지털 허브 위치

- 주요 내용

- 베를린은 독일 스타트업의 중심도시
 - 매년 4만여 개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
 - 수많은 기술 콘퍼런스와 스타트업 콘테스트,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 등이 재능있는 창업자를 끌어 모으는 동력으로 작용
- 베를린 디지털 허브의 담당 분야인 사물인터넷과 핀테크는 오늘날의 산업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기술
 - 디지털 헬스, 에너지·운송 기술, 스마트 웨어러블(Smart Wearable), 스마트 시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적용 가능
- 재경·에너지부가 디지털 허브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베를린은 디지털 허브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 핀테크를 전담하는 H:32는 2017년 7월 새로운 본사로 이전했으며, 사물인터넷을 담당하는 IoT Hub는 올 7월 새로운 건물로 이전
 - “베를린에는 250개가 넘는 IoT 회사와 80개의 관련 기관·주체가 활동 중입니다. 이들이 지닌 잠재력을 바탕으로 베를린을 사물인터넷과 산업 4.0 중심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 라모나 팝 재경·에너지 상원의원의 IoT Hub 개관식 인사말

- 베를린 IoT Hub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 팩토리 베를린(Factory Berlin), Next Big Thing 주식회사, 디지털 네트워킹 서비스 센터, 베를린 비즈니스&테크 파트너 등
 - 팩토리 베를린: 기술 중심의 젊은 기업과 독일의 전통 산업 간의 간격을 메꾸는 매치메이커 역할을 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
 - Next Big Thing 주식회사: IoT,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컴퍼니 빌더’(Company Builder)
 - 스타트업 회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위험요소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부동산·농업·물류 분야에서 여러 IoT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킴
 - 디지털 네트워킹 서비스 센터: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 산하의 협력체로 디지털 문제에 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제공
 - 베를린 비즈니스&테크 파트너: 베를린 내 지역개발을 담당하며, 관련 기업에게 자금조달 방법, 적절한 입지, 유능한 인력 등의 자문을 제공

<https://www.finleap.com/about/fintech-hub-berlin-h32/>

<https://www.de-hub.de/en/the-hubs/berlin/>

https://www.de-hub.de/fileadmin/content/faq/presskit_en_digital.pdf

<https://www.berlin.de/sen/web/presse/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716007.php>

<https://www.berlin-partner.de/nc/en/press/press-releases/single-view/berlin-ist-die-hauptstadt-fuer-iot-und-fintechs/>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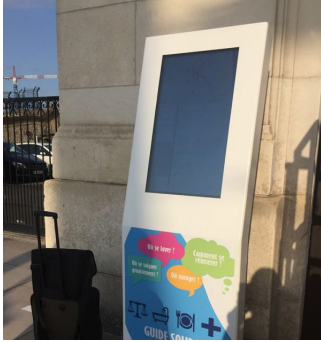
사회·복지

기차역에 ‘노숙자 타깃’ 복지서비스 안내 터치스크린

프랑스 보르도市 / 사회·복지

-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프랑스는 노숙자를 도울 시설은 부족하지 않지만, 노숙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르도市 철도공사는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역사 주변 노숙자에게 관련 복지서비스 시설을 손쉽게 안내해주는 무인 터치스크린을 설치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배경
 - 노숙자 문제는 크고 작은 모든 도시의 공통된 문제지만, 자칫 인권침해 등과 연관 될 수 있어 민감한 사회 문제임
 - 보행자의 심리적 안전이나 도시미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숙자의 건강·위생·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
 - 각 도시의 기차역은 노숙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며, 타지 방랑객도 많이 유입되는 장소
 - 기차역에 모인 노숙자가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시민단체가 제안
 - 터치스크린은 철도공사가 주최한 기차역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취약계층 분야에 당선된 프로젝트로, 2016년 설립된 시민단체 솔리눔(Solinum)이 제안
- 주요 내용
 - “어디서 씻을 수 있는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가? 다치거나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노숙자 삶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
 - 하지만 정보전달의 문제로 노숙자가 화장실이나 식사를 해결할 공간 등을 찾기 어려움
 - 보르도 기차역에 프랑스 최초로 터치스크린 안내판을 설치해 노숙자가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현재 약 3,300개의 관련시설 주소가 등록되어 있음

- 무료급식소, 의류 배분처, 여성노숙자 전용 샤워시설 등의 정보를 수록
-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



[그림 1] 보르도 역사에 설치된 복지시설 안내 터치스크린

- 설치 후 이틀간 7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 사용자당 평균 이용시간은 5분 내외이며, 이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등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 3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
 - 보르도 시내에 두 번째 터치스크린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파리와 낭트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
- 의의
- 인권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프랑스에서 각종 무료서비스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진짜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 정보를 노숙자가 얻기 어렵다는 것
 - 이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한 솔리넘의 복지시설 안내 터치스크린은 처음 길 위에 나오게 되어 아무런 정보가 없는 노숙자에게 큰 도움이 됨
 - 다시 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 등의 안내도 포함한다면, 지금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https://www.ouest-france.fr/nouvelle-aquitaine/bordeaux-une-borne-tactile-la-gare-pour-aider-les-sdf-5773362>

<https://www.20minutes.fr/bordeaux/2285459-20180608-bordeaux-borne-orienter-sdf-vers-acteurs-solidaires-installee-gare>

<http://www.up-inspirer.fr/42070-a-bordeaux-une-borne-tactile-pour-les-sans-abri>

<https://www.bordeauxtendances.fr/une-borne-pour-les-sdf-a-la-gare-saint-jean/>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행재정·교육

20개 구청과 협력해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프랑스 파리市 / 행재정·교육

- 프랑스 파리市는 시내 곳곳에 존재하는 서민지역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 중
- 배경: 파리의 서민지역
 - 파리로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소위 ‘좋은 동네’, ‘부자 동네’와 ‘안 좋은 동네’, ‘가난한 동네’의 지역적 구분이 고착화된 상태
 - 파리는 주로 ‘센강 위’와 ‘센강 아래’로 구분되지만, 모든 지역에 빈부격차가 존재
 - 센강 아래는 땅값이 비싸고 안전하며 삶의 질이 좋은 백인 중심 지역, 센강 위는 땅값이 싸고 범죄율이 높으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민자·유색인종 중심 지역
 - 하지만, 서울보다 규모가 작은 파리는 센강 아래의 구(區)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지역이 있음
 - 이러한 가난한 지역을 프랑스어로 ‘카르티에 포퓰레르’(Quartier Populaire: 서민지역)라고 부름
 - 서민지역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는 파리의 주요 과제
 - 젊은 초임 의사들이 서민지역 개업을 꺼린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며, 파리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
 - 시정부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프로젝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시는 GUP(Gestion Urbaine de Proximité: 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 서민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프로젝트를 주도
 -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 예산’ 제도와 연계(※ 339호, 398호 참조)

-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서민지역의 인프라·문화 관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
-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함
 - 해당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 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실생활을 이해
- 파리 13구는 ‘거주자 포럼’(Forum des habitants)을 열어 주민 만남의 장을 만들
 - 구청의 주도로 주민이 함께 모여 토론과 의견교환, 지역문제에 관한 설문 조사 등을 시행
 -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구청도 포럼을 개최해 여러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

– 주요 사례

- 매월 하루씩 거리의 차량을 통제하고 ‘어린이를 위한 거리’로 만들어 행사를 진행
 - 파리 11구의 로베르 우댕(Robert Houdin) 거리서 5월과 6월 하루씩 시행
 - 500명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가 모여 함께 자전거를 타고 거리와 벽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문화적 행사를 진행
 - 같은 지역 내 어린이·부모 간의 교류 증진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올리는 시도
- 여성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촉구하는 야간 거리 행진
 - 범죄율이 높은 센강 위쪽 지역인 19구 ‘오르그 드 플랑드르’(Orgues de Flandre) 지역에 여성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함을 알리는 행사
 - 2018년 2월 밤에 여성들과 함께 지역 거리를 행진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표시한 여성안전지도를 제작
- 오토바이·스쿠터의 위협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 안전교육 시행
 - 19구 오르그 드 플랑드르 지역에서 구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오토바이·스쿠터 이용자에게 헬멧착용, 속도조절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
- 부동산세 수입의 30%를 사회주택(Bailleur Sociaux) 주민에게 투자
 - 프랑스의 사회주택 제도는 서민주거의 질 향상에 적극적
 - 2016년부터는 부동산세 수입의 30%를 사회주택 주민에게 투자하도록 함
 - 일례로, 10구 사회주택 근처 광장에 비둘기가 급증해 광장 이용이 불가능 해지자 이 투자금으로 맹금류 사육사를 고용해 비둘기 문제를 해결

- 거리 녹색화를 지원하는 녹색예술 아틀리에 운영
 - 17구 프라고나르(Fragonard) 거리에 녹색예술(식물 등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도시를 녹화하는 예술) 관련 아틀리에 6개를 만들고 예술가를 고용
 - 시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녹색화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의 DIY 개념인 '브리콜라주'(Bricolage)에서 정원관리는 많은 사람이 찾는 분야로, 무료 아틀리에에 시민의 관심이 큰 편
 - 시정부는 2016년부터 3천만 유로(396억 원)를 투자해 서민지역의 인프라와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중
 - 노후 공공공간 정비, 어린이 놀이센터(Centre d'animation: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 레크레이션 센터) 운영, 건물 외벽 예술벽화 지원 등
- 의의
-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참여예산 프로젝트 상당수가 서민지역의 인프라와 문화개선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파리시민의 공통된 바람임을 의미
 - 시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중

<https://www.paris.fr/actualites/l-amelioration-du-cadre-de-vie-dans-les-quartiers-populaires-5914>

<https://www.paris.fr/actualites/une-premiere-rue-aux-enfants-rue-pour-tous-dans-le-11e-5898>

https://budgetparticipatif.paris.fr/bp/jsp/site/Portal.jsp?document_id=2949&portlet_id=158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환경·안전

염소페 이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잡초 제거

캐나다 에드먼턴市 / 환경·안전

-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외래침입종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제초제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는 훈련받은 염소페를 이용한 친환경적 잡초제거 방식을 도입했는데, 친환경적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배경
 - 에드먼턴시는 침입외래종 유해잡초 제거 사업에 2017년부터 매년 3백만 캐나다 달러(25억 6천만 원)를 투입
 - 침입외래종 유해잡초는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하수처리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침식할 위험이 있음
 - 주요 유해잡초는 데이지, 노랑 해란초, 엉겅퀴, 민들레, 쑥국화, 우엉 등
 - 시정부는 앨버타주정부의 잡초방제법(Weed Control Act)을 근거로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시행 중
 - 사유지에서 유해잡초가 발견되면 소유주에게 유해잡초 제거요청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부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거 비용을 청구
 - 홈페이지에 유해잡초의 식별과 제거 방법 등을 안내
 - 유해잡초의 씨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원 등지를 떠날 때 옷, 신발, 반려견 등에 묻은 씨를 청소할 것을 권장
 - 2015년부터 일부 공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제초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어 친환경적 제초방법 중 하나인 염소 제초법이 주목
- 주요 내용
 - 시정부는 파일럿 프로젝트 'GoatWorks'를 계획하고, 2018년 11개월 동안 염소페를 돌보고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할 염소 코디네이터(Coat-ordinator)를 선발
 - 염소 코디네이터의 조건으로는 원예, 임업, 환경 등 관련분야의 학위나 경험, 운전면허 등을 요구

- 염소 코디네이터의 시간당 임금은 최대 43캐나다달러(3만 6천 원)로 책정
- 염소를 이용한 잡초제거 업체 ‘바드 식물 관리·교정’(Baah’d Plant Management & Reclamation)이 참여
 - 2015년부터 앨버타주 전역을 400마리의 염소떼와 함께 여행하며 공원 등지의 침입외래종 유해잡초를 제거하는 용역 사업을 수행
 - 특별한 잡초제거 훈련을 받은 염소를 사용해 유해잡초만 효과적으로 제거
 - 토양샘플 분석을 의뢰해 외래침입종의 번식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
- 염소를 활용한 잡초제거는 친환경적일뿐 아니라 효과도 우수
 - 염소는 미끄럽거나 경사진 장소, 초목이 무성한 곳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제초제 등 다른 잡초제거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효과적
 - 염소의 위는 산성이어서 침입외래종의 종자를 확실하게 파괴해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음
 - 염소똥은 건조하고 쉽게 부서지며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가 꼬이지 않아서 그대로 두어도 자연비료의 기능을 함



[그림 1] ‘GoatWorks’ 프로그램 홍보 사진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bylaws/weed-control-private-property.aspx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goats-weeds-rundle-dandelions-1.4144581>

https://www.edmonton.ca/activities_parks_recreation/parks_rivervalley/goat-pilot-project.aspx

<https://www.ctvnews.ca/canada/city-of-edmonton-will-pay-goat-co-ordinator-up-to-43-per-hour-to-oversee-project-1.3820835>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dandelions-edmonton-city-council-1.4667387>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으로 도시재생 모델 구축

캐나다 토론토시 / 환경·안전

- 캐나다 토론토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됨



[그림 1] 에버그린 브릭웍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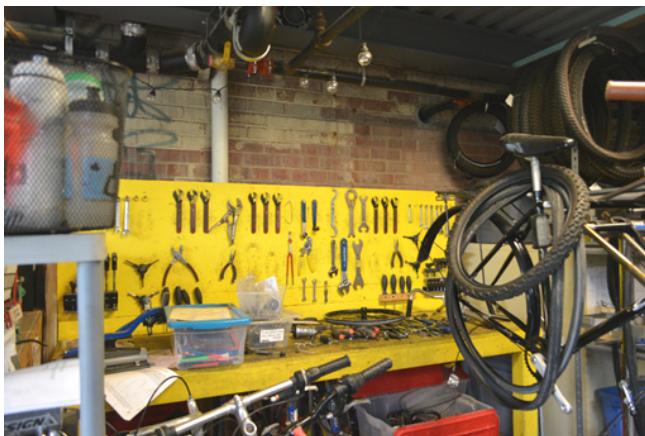
- 배경과 개요

-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
 -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으며, 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
 - 1세기 이상 운영되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
 -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개발이 지연
-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
 -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
 -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하고, 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지원
 - 이밖에도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

-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운영을 위임
 - 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
 -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개발
-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현재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

- 주요 내용

-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
-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 운영
 -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는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
-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
 - 자전거 DIY 공간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가 상주하며,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주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 마켓 운영
 -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장이며,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
-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그림 2] 자전거 DIY 공간



[그림 3] 지역 파머스 마켓

-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은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
 -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

– 의의

-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토론토시를 친 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함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
-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

<https://www.toronto.ca/311/knowledgebase/kb/docs/articles/parks,-forestry-and-recreation/urban-forestry/don-valley-brick-works-park-evergreen-brick-works.html>

<https://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고한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도시교통

‘100% 전기차로만 운영’ 차량공유 서비스 시동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도시교통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교통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이동성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프랑스의 볼로레(Bollere)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100% 전기차로만 운영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도입
- 개요
 - 2015년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의 차량공유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획
 - 프로그램 운영자로 프랑스의 볼로레 그룹이 운영하는 BlueLA 를 선정
 - 볼로레 그룹은 프랑스 파리의 차량공유서비스 오토리브(AutoLib)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최초의 전기차 공유 서비스인 Bluendy도 담당
 - 3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8년 4월 20일 공식 출범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지원금 167만 달러(18억 9천만 원), 시정부의 간접지원(시설보조, 수수료 감면 등) 185만 달러(20억 5천만 원)에 볼로레 그룹의 초기투자금 1천만 달러(112억 9천만 원) 이상이 투입
 -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저소득층의 이동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전화를 이용해 가입
 - 이용요금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9.5%의 세금이 추가
 - 저소득층은 시간당 9달러(1만 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

[표 1] BlueLA 이용료

구분	일반회원	저소득층 회원	1달 체험권
회비 (연단위 가입)	월 5달러(5,500원)	월 1달러(1,100원)	무료
분당 이용료	0.2달러(220원)	0.15달러(165원)	0.4달러(440원)

- 예약은 주로 웹사이트나 앱으로 하며, 직접 BlueLA 스테이션을 방문해도 가능
 - 1개의 스테이션에서 5개의 차량과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느 스테이션에서나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음
 - 365일 24시간 셀프서비스로 운영
- 올 연말까지 서비스 스테이션 40곳, 전기차 100대, 충전소 200곳을 설치할 계획
- 2년간 최소 7천 명의 신규이용자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
 - 개인차량 1천 대의 판매감소와 2,1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



[그림 1] BlueLA 차량

<https://www.bluela.com/>

https://www.bluela.com/sites/bluela/files/medias/images/PDF/user_guide.pdf

<http://sharedusemobilitycenter.org/news/bluela-electric-carsharing-service-launches>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다양한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 ‘모빌리티법’ 첫 시행

독일 베를린市 / 도시교통

- 독일 베를린市는 모든 사람이 도시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수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 도시계획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하는 ‘모빌리티(이동성) 보장을 위한 법률요건의 새 규정을 위한 법안’(이하 ‘모빌리티법’)을 시행

- 개요

- 시정부는 베를린을 자전거친화도시로 만들고 차량운행을 줄이는 각종 법안과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 2016년 자전거 활동가를 주축으로 진행된 자전거 주민투표(Radentscheid) 운동이 시발점
- 최근 베를린 상원의회는 도시 전반의 이동성 향상을 목표로 한 ‘모빌리티법’을 수개월간의 수정과 토론 끝에 통과
 - 자전거·차량을 포함한 모든 이동수단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목적
 - 도시 내를 이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이동수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독일 도시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모빌리티법

- 주요 내용

- 모빌리티법에 명시된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도시·환경·기후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안전하고 무장애화(Barrier-Free)된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용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대도시 기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도시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내용은 교통시스템 전반, 교통안전, 자전거교통, 대중교통의 4개 분야로 구성
- 교통시스템 전반
 -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다원화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개발

- 교통 인프라를 재설계해 도시 내에서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쾌적하게 만들
- 도로를 차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의 만남과 휴식,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재설계
- 고속열차, 항공 등과 지역 내 교통수단의 연계를 최적화한 교통계획 수립
- 대형 행사 시 이동성을 보장
- 자전거, 열차, 보행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확충
- 대기오염이나 소음 문제 등 교통수단에 의한 건강침해를 최소화
- 교통안전
 -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해도 도시 내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비전 제로(Vision Zero) 가이드라인에 맞춘 교통안전 계획과 기준 설립
 - 교통안전에 적합한 직관적 교통인프라를 구축
 -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기관이 즉시 해당 장소의 교통안전 관련 검토를 시행하고 맞춤형 대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수립
 - 연간 10회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장소도 사고 원인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
- 자전거교통
 - 자전거교통 담당 경찰관 확충
 - 장애물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도로와 정거장 등을 확보
 - 자전거도로는 차도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보행자와 인도를 공유하는 환경을 최대한 줄여야 함
 - 상태가 안 좋은 자전거도로는 문제 파악 후 6개월 이내에 정비
 - 2025년까지 자전거 주차공간을 총 10만 곳 확보
 - 대중교통 인근 지역 5만 곳과 공공공간, 사회·문화·교육시설 등에 5만 곳 설치
 - 주요 역에는 5년 안에 자전거 주차건물 등의 설치를 의무화
- 대중교통
 - 베를린 교통국(BVG)은 버스 전용차로, 정거장 구역, 노면전차 노선 등에 있는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중교통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의의

- 이 법안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특권을 갖는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
 - 하지만 이는 개인의 차량 이용을 배제하자는 문화투쟁의 의도가 아니라, 승용차와 같이 특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강제하는 도시환경에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도시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한
- 도시교통계획은 단순히 빠르기와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 다양성·공정성·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계획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https://www.parlament-berlin.de/ados/18/IIIPlen/vorgang/d18-0878.pdf>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mobilitaetsgesetz>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mobilitaetsgesetz/download/mobilitaetsgesetz_broschuere.pdf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verkehr/berliner-verkehr-das-sind-die-wichtigsten-punkte-aus-dem-mobilitaetsgesetz-30698582>

<https://www.tagesspiegel.de/berlin/verkehr-in-der-hauptstadt-rot-rot-gruen-beschliesst-das-mobile-berlin/22747508.html>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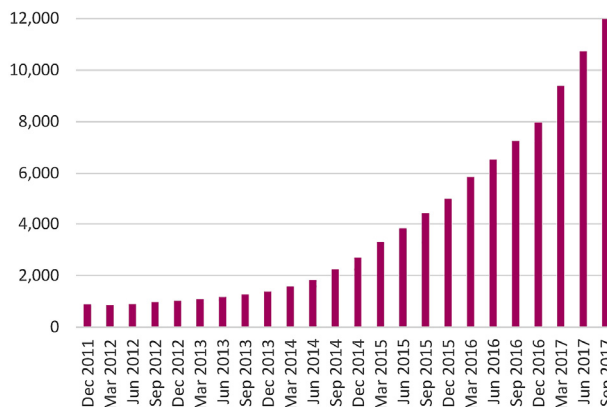
전기차 주차·충전 인프라 확충해 보급 활성화

영국 런던市 / 도시교통

- 영국 런던市는 대기환경 개선 노력의 하나로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시내 운행 전기차가 1만 2천여 대로 늘어났지만, 장기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의 충전·주차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배경

- 전기차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부족
 - 현재 런던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는 2012년 대비 10배 증가한 1만 2천여 대
 -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재정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기차 지원정책을 병행 추진한 결과
 - 하지만, 보급 대수에 견줘 주차·충전 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형편



[그림 1] 런던 전기차 등록 대수 증가 현황

- 시정부의 전기차 주차·충전 시설 지원정책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민에겐 무용
 - 전기차 구매자가 주택의 차고(garage)나 마당의 주차공간(driveway)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 하지만, 런던 총 주택 중 60%에는 개인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
 - 따라서 주택 내 주차공간이 없는 시민에게 전기차 보급을 권장하려면 주차장과 충전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노상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장 증설이 필수이지만, 전기차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 또한,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도 질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만족시키지 못함
 - 정부의 전기차 지원정책도 건물이나 주택 내부의 주차장·충전소 설치 위주로 설계되어, 노상 전기차 인프라 설치 지원이 미비

- 주요 내용

- 런던시는 전기차 활성화를 가로막는 전기차 주차장·충전소 등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
- 1) 2020년을 목표로 한 런던 교통전략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
 - 단기 정책으로 각 자치구에서 전기차 주차장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조치
- 2) 장기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시민과 공유
- 3) 민간기업이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민간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런던교통공사의 출연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확대를 지원
- 4) 시정부나 자치구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보도를 침해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함
 - 일반 시민의 통행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시 불편함을 모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 5)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전기차 인프라 확충 계획을 시 차원으로 통합해 진행
 - 런던시와 각 자치구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행정·재정적 협력을 추구
- 6) 시민의 자동차 소유 비중을 줄이고 공용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https://www.london.gov.uk/about-us/london-assembly/london-assembly-publications/electric-vehicles-london-0>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environment_committee_-_ev_report.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도시계획·주택

빈 시영주택, NPO 등 사회단체 활동근거지로 제공

일본 오사카市 / 도시계획·주택

- 일본 오사카市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영주택 단지에서 고령자 생활지원, 육아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NPO 등 사회단체에 비어 있는 시영주택 1층의 집을 활동근거지로 제공
- 배경
 - 오사카시 시영주택 단지에는 고령자나 육아 세대를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단체 13개가 활동 중이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자 생활지원: 생활지원, 고령자 모임공간이나 교류의 장 제공, 방문요양 서비스 등
 - 육아지원: 육아 동호회 운영, 육아 상담, 보육 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역 실버인재를 활용한 주민 생활편의 향상 서비스, 지역 녹화 활동 등
 - 시정부는 시영주택 단지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단체 중 활동근거지가 필요한 단체에게 시영주택 1층의 빈집을 저렴한 값에 제공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보증금은 없고, 사용료는 면적이나 건축 연도에 따라 다름
 - 비영리 단체는 사용료를 1/2 감액
 - 최장 4년 사용할 수 있지만, 매년 갱신 절차 필요
 - 전기·수도·가스 사용료나 공공요금은 단체에서 부담
 - 실내 구조변경이나 공용 시설에 공작물 설치 등이 필요한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도 있음
 - 활동근거지로 사용하는 집의 관리는 활동 단체의 책임
 - 단지 청소나 축제 등 해당 단지의 자치활동에 참가해야 함
 - 주거 공간으로의 이용은 불가

- 시영주택 단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에게 제공
 - 설립취지서나 정관 등이 있는 단체로서 설립 후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지만, 신설·이전·증설 등으로 활동근거지가 필요한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나 공공복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제외
- 주요 사례
 - 어린이 지원 사업
 - 어린이 상담실을 개설하고 어린이가 자신이나 친구·가족 관련 문제를 언제든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방과 후 학습, 예술을 이용한 자기표현, 교류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립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의 장 운영
 - 어린이를 지원하는 지역 내 인재 확보와 양성
 - 방그레 룸(にっこり Room)
 - 0~3세의 유아가 있는 부모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 상담 등을 시행
 -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활동
 - 지적(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추구
 - 만남 카페 코스모스(コスモス) 운영
 -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지역주민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생활지원의 장이 되어주는 만남 카페이며, 카페를 근거지로 한 이벤트나 요양 상담 등을 시행

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426112.html

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426/426112/chirashi.pdf

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426/426112/katudoujoukyou.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젊은 신입교사에 임대주택 제공해 ‘교사난 타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도시계획·주택

- 교사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신입교사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주거비 문제임을 인지하고, 시내 초·중등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사에게 최장 5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00호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
- 배경
 -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의 많은 도시에서 최근 교사부족 문제가 심각해짐
 - 2020년에는 암스테르담 시내 전체에 필요한 초등교사 3,600명 중 415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 2만 4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교사 부족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 2015년 교사 이수과정 입학제도 난이도 상향 조절 이후 교사 수 급감
 - 교사 자격이 있어도 취업이 되지 않아 진로를 바꾸는 졸업생이 늘어나자 2015년 교사 이수과정 입학시험 난이도를 높여 입학생 수를 조절
 - 어려운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인 만큼 중도이탈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입학생 3명 중 1명이 이수 포기
 - 신입교사 감소로 기존교사의 담당 학생 수와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과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 증가
 - 긴 업무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 등으로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교사 직종 자체가 인기를 잃게 됨
 - 베이비붐 세대 교사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면서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교사 부족 문제가 악화
 -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내에서도 주거비가 현저하게 비싸 신입교사가 정착하기 특히 어려운 실정
 - 암스테르담에서 근무하는 많은 교사가 장기간 통근을 감수하고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에 사는 상황
 - 이에 집을 구하기 쉬운 중소도시에 부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암스테르담 내 교사 부족 문제는 더욱 빠르게 악화

- 주요 내용

- 시정부는 도시 내 초·중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에게 최장 5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00호를 우선 제공
 -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주당 근로 시간 19시간 이상, 연소득 36,798유로(4,850만 원) 이하 신입교사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짐
 - 청년과 난민 지위 획득 계층과의 소셜믹스(social mix)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 중 5개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100호를 우선 제공
 - 신입교사가 집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장 5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 교사 이수과정 마지막 해인 4년차 학생에게 암스테르담 학교에 부임하는 조건으로 12,000유로(1,58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치 학비를 보전
- 신입교사뿐 아니라, 기존교사나 교사 자격증 보유자 유치 노력도 병행
 - 근교에서 도시로 이전해 오는 교사에게 통근 비용 지원, 주차공간 제공, 이사 비용 지원 등을 제공
 - 교사 자격이 있지만 다른 직종에 종사 중인 사람이 암스테르담 내 학교로 복직할 때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5천 유로(660만 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조금 제도 마련
- 모든 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9년 2월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 교사 등 특정 직군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도시 내 필요인력 확보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슷한 정책을 의료·경찰 인력이나 기타 전문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

<https://nltimes.nl/2018/06/01/stricter-teacher-training-admissions-dont-lead-better-students-prof-says>

<https://www.bnr.nl/nieuws/arbeidsmarkt/10000943/9-000-leraren-extra-nodig-in-onderwijs>

<https://www.parool.nl/amsterdam/lerarentekort-meer-geld-en-gemak-moeten-leraar-lokken~a4493472/>

<https://www.amsterdam.nl/actueel/nieuws/100-woningen/>

<https://www.parool.nl/amsterdam/amsterdam-wijst-100-woningen-toe-aan-leraren~a4600596/>

https://www.amsterdam.nl/onderwijs-jeugd/onderwijs-en-jeugd/extra-beurzen/?_sp=29845783-3bd8-45ee-b19d-53aed174b80b.1530795146705

<https://www.parool.nl/amsterdam/amsterdam-reserveert-woningen-voor-jonge-docenten~a4559594/>

장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